최근 농수산물 가격 흐름 '두 갈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폭염·소비 부진에 강보합세와 약보합세 양극화 뚜렷"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주요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이 폭염과 이상기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일부 품목은 작황 부진과 출하 감소로 가격이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품목은 소비 둔화와 출하 증가로 약보합세를 기록하며 농민과 유통업계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전북 고창·정읍 등지에서 출하되는 수박은 여름 성출기를 지나며 출하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광주 도매시장에서 10kg 내외 상품은 2만8,000원선에서 거래되며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과거 여름철 대표적 효자 품목이었던 수박은 폭염으로 품

질이 저하되고, 동시에 소비가 냉방기기·간편 음료류로 분산되면서 수요가 줄어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대로 전북과 인근 지역에서 출하되는 채소류는 폭염 피해로 물량이 크게 줄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깻잎은 2kg당 3만4,000원, 미나리는 7.5kg당 8만1,000원에 거래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알배기배추 역시 고온다습한 기후로 상품성이 떨어져 중품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8kg 상품은 3만8,000원, 중품은 2만1,000원에 거래되며 산지 작황 악화가 가격에 직접 반영됐다.

특히 미나리의 경우 대구·경산·청도 등 인근 지역에서 주로 반입되지만, 고온으로 작업량이 줄어 공급 부족이 심각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 농민들은 "폭염이 길어질 경우 출하량은 더 줄고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들깨도 강세 품목에 포함됐다. 전북과 충북 지역에서 출하되는 들깨는 전년도 재고가 소진된 상황에서 햇들깨 수확기가 오기 전까지 반입 물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대전 도매시장에서 22.5kg 상품 기준 38만1,000원에 거래되며 전주 대비 5% 이상 올랐다. 이는 가공업체의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 위축과 출하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다. 경남 진주·창녕과 강원 평창 등에서 출하되는 파프리카는 금주 산지 출하량이 늘며 5kg 상품이 4만원선에 거래됐다. 중품은 2만9,600원으로 내려가며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과수류도 개학과 맞물린 소비 비수기의 영향을 받았다. 경북 상주·영천·김천, 충북 영동에서 출하된 거봉 포도는 2kg당 1만7,000원에 거래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물량은 풍부했지만 거래 부진이 이어진 것이다.

수산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 전통시장에서 갈치는 제주 해역 어획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맞물리며 대형 1마리 기준 1만3,600원, 중형은 8,660원에 거래되며 내림세를 나타냈다.

꽃게는 금어기 해제 이후 반입이 원활해지면서 1kg 중품이 1만3천원에 형성되며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오상근 기자

휴먼피아코스텍은 지난 27일 오사카 수출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 PJ Inc.사와 2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3년)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사카서 200만불 수출 계약체결

휴먼피아코스텍, 일본 도쿄·오사카 무역사절단 참가

㈜휴먼피아코스텍은 전북에 본사를 둔 16년의 업력을 가진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마스크팩과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제품력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휴먼피아코스텍(대표 김양수)은 지난 27일 오사카 수출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 PJ Inc.사와 2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3년)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휴먼피아코스텍은 70만불 규모의 1차 수출(마스크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바이어와의 파트너십 확대와 안정적인 일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먼피아코스텍은 일본을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거점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스토리,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고품질·고신뢰 시장으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한 시장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에 까다로운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 받고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정부 정책대응 TFT' 본격적인 활동 시작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정책대응 TFT'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임직원 48명이 참여한 TFT는 국정과제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공사는 정부 과제 123개 중 관련 부분을 추려 부서별 과제를 배정했다.

이번 TFT의 활동은 정부의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대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해 전기안전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TFT를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사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적 전기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진청·한국양봉학회, 제41차 양봉학회 하계 학술대회 열어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둘째 날(29일)에는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자와 이용 농가, 시범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이용 기술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과 이용 사례를 공유하고 딸기, 수박, 멜론 등 작물별 화분매개용 꿀벌 표준화 이용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소통간담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전북 지역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을 대상으로 명판 수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전북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라 상인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상인회의 위상 제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행사에는 박은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팀장, 김혜숙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

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신규 지정된 상인회장에게 상인회장 명판을 공식 수여하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권 대표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합리적인 분양가·탁월한 입지여건 주목

전개공, 익산부송데시앙 100% 계약완료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9일, 익산 부송4지구에 선보인 '익산부송데시앙'의 전세대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2층 지상 20층, 총 8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된 총 745가구에 달하는 단지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익산부송데시앙' 완판이 최근 침체된 지방 분양 시장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미분양 물량이 4만9,795가구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쾌거로 평가된다.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익산부송데시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전용 84㎡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 3억1,850만원

~3억5,510만원선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여건도 계약 완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도보권에 궁동초, 영등중, 어양중 등이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익산병원,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북측의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팔봉근린공원, 익산시민공원 등을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상근 기자